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이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13일부터 시민편의 위해 일괄 처리...반납시 교통카드 10만원 즉시 지급

오는 13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뒤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충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지원신청을 각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처리(원스톱)하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면허증은 관할 경찰서에 반납하고 교통카드 신청과 지원은 시청에서 처리했다.

기관 간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아 면허증 반납부터 교통카드 발급까지 2개월 가량 소요되면서 여러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소지한 자진반납자 본인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스템에 입력해 정상 운전면허로 확인되면 운전면허 반납과 취소처분을 한 후 현장에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반납 대상 면허는 1종 보통, 1종 대형, 2종 보통 등 3종이며, 면허정지 상태이거나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고령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지급 서비스는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자진반납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시는 2019년 6월부터 시행해 2019년 1592명, 2020년 2117명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587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앞으로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과 교통카드 지급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수가 늘고 고령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계속 늘고 있다”며 “간소화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경찰서와 시청을 이증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 곡성 사과 우박피해 현장 살펴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곡성 옅곡면 사과농장 우박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피고, 농가를 위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비를 동반한 1~2cm 크기의 우박이 내려 곡성읍, 고달면, 옅곡면 일대에 사과, 배, 고추, 옥수수 등 과수, 밭작물 38ha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사과 피해 현장을 둘러본 후 “사과 열매가 한창 커지는 시기에 이런 피해를 입어 안타깝다”며 “피해조사를 빠짐없이 하고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내린 우박으로 전남지역에서는 곡성을 비롯해 구례, 광양 등에서 총 70ha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남도는 피해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제에 나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광주·대구 자원봉사 달빛동맹 온라인 교류

영상 상영·환경보호 퍼포먼스 등

광주시가 5일 광주도시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을 통한 광주·대구 자원봉사 달빛동맹 교류의 장 행사를 가졌다.

자원봉사 달빛동맹은 영호남 화합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매년 대구와 광주를 오가며 열렸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직접 방문 대신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행사로 마련됐다.

이번 교류의 장은 대구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대구시에서 준비한 달빛스토리 영상상영, 기후대응을 위한 자원봉사자 퀴즈와 환경보호를 위한 퍼포

먼스 등 순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자원봉사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달빛동맹의 정을 확인했다.

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광주·대구간 자원봉사 교류가 양 지역간 화합과 협력에 특별한 역할을 했다”며 “내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해 대면으로 만나 어울리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대구 달빛동맹은 ‘연대를 화합을! 교류로 소통을! 자원봉사로 우애로!’라는 슬로건으로 2013년 시작된 이후 9회째 열리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시, 도심항공교통 전문가 그룹 첫 회의

광주시가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 UAM 전문가 그룹에는 ▲한서대 ▲광주과학기술원 ▲송의과학기술대학교 ▲광주테크노파크(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소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 ▲㈜한양항공 ▲법무법인 이우스 ▲(사)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기술연구소 ▲(사)한국도심항공교통협회 호남지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과 연계한 광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방향과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대중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략 실현 방안으로 공공서비스 발굴,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체험 시설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광주시 도심항공교통 전문가 그룹은 ▲정부 정책 연계사업 발굴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방안 ▲인프라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시와 적극 협력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상의 도심 교통 혼잡이 갈수록 심해지고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항공교통산업을 하는 길을 여는 필연적인 산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필수 요소로 보고 적극 육성하고 있다.

아시아자동차공업사의 설립에서 시작한 광주시 자동차산업의 역사는 기어위의 오토랜드광주를 거쳐 현재 국내 제2의 자동차생산능력을 보유한 자동차산업 대표도시가 됐다. 오는 9월에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신차 생산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런 자동차산업의 역사를 지상에서 하늘까지 이어가기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손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친환경차와 플라잉카 등으로 대변되는 미래 모빌리티산업에서 광주시가 앞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이·미용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실시

광주 동구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제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1년 공중위생업소(이·미용) 서비스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서비스 평가대상은 지역 내 이·미용업 56개소, 미용업 508개소 등 총 564개소로 1차 평가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담당 공무원과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이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 평가했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영업주의 노력 사항 등 24~26개 항목에 대해 시설환경, 고객 안전성, 서비스 품질에 대해 중점 평가한다.

서구 예방접종센터, 빛고을체육관으로 이전

광주 서구는 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기존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서빛고을체육관으로 옮겨 예방 접종을 이어간다.

서구는 지난 4월1일부터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예방 접종을 했으나 광주시 연구 배구팀 유치와 관련해 시설 개보수 작업 일정에 따라 접종센터를 이전했다. 서구는 이전에 앞서 빛고을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 시설을 구축하고, 센터 설치 기준에 따라 소방·전기 등 합동 안전 점검과 모의훈련을 한다.

한편, 지금까지 예방접종센터에서는 노인 시설·75세 이상·30세 미만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1차 1만7147명, 2차 1만5423명이 접종을 마쳤다.

남구, '양림동 테마투어' 운영 단체 모집

광주 남구는 1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테마별 전문 문화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양림동 테마투어 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개 모집 분야는 건축과 선교, 예술 등 3개 테마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광주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문화 또는 예술, 관광, 종교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남구는 사업 단체의 적격성을 비롯해 사업 내용의 독창성·적합성·실현 가능성, 사업 진행에 따른 지역 사회 기여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구체성, 사업 홍보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각 테마별 운영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북구, 광주·전남 유일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

광주 북구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관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평가에서 광주·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친화도시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됐다.

북구는 청년센터,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청소년 사회적경제 학교, 가족단위 체험 교실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활동을 펼친 성과를 인정받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친화도시로 선정됐다.

광산구,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광주 광산구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업분야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광산구는 지난 1일 생명농업과장 총괄하에 4개팀으로 구성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10월15일까지 운영에 들어갔다.

상황실은 평시에 기상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재해취약지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노후한 농업시설물 철거 또는 보강에 나설 예정이다.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일선 동 행정복지센터, 농민, 농협 등과 공조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재해발생 시 현장에 팀을 파견,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응급복구를 추진한다. 임행택 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월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비	비율
5분위	240,833원	1,114,000원	1.1배
4분위	125,531원	1,255,310원	1.7배
3분위	79,147원	1,382,940원	2.1배
2분위	48,103원	1,441,660원	2.7배
1분위	26,697원	1,382,940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립건강보험
국립건강보험
국립건강보험

한국연륜진흥재단
Korea Pensio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